



르네상스: 28년 동안 사업자의 신뢰를 받는 조언과 합리적인 대출로 스몰 비즈니스를 성장시킨 이야기

작성자: Jessie Lee (대표, Managing Director)

르네상스(Renaissance)는 지난 28년 동안 지역 내 커뮤니티의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무료 상담, 교육, 그리고 최대 \$100,000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비영리 기관으로서 저희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경제 활력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가들이 부를 축적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저희의 맨해튼 로어아이스트사이드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두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대 계약 협상, 시 정부 규정 준수, 사업자 등록증 발급, 디지털 마케팅 시작, 비즈니스 계좌 개설 등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10명의 비즈니스 어드バイ저가 항상 곁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흔들림 없는 헌신입니다. 르네상스는 스몰 비즈니스의 성장을 돋기 위해 합리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습니다. 저희의 이자율은 항상 시중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 8% 고정 이자율로 최장 5년 상환 조건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르네상스를 통해 \$100,000의 대출을 8% 이자율, 5년 상환 조건으로 받으시면, 매달 상환금은 \$2,027.64입니다. 이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변동되지 않으며, 5년간 총 \$21,658.37의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 자금을 재고 구매 또는 성장 투자에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지불한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힘이며, 아메리칸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안타까운 현실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해 고리의 사금융기관(Predatory Lending)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고리의 사금융기관(Predatory Lending)은 앞으로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대출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들은 대출의 진짜 비용을 숨기기 위해 수수료(Fees)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이자율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잊지 못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고객이 \$30,000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10,000의 수수료가 붙어 2년 내 \$40,000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는 무려 연 78%에 달하는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이런 계약은 저희가 너무 자주 접하는 현실이며, 많은 경우 이자 외에도 은행 계좌에서 매일 자동 출금이 이루어지며 비즈니스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업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러한 고금리의 사금융(Predatory) 대출은 개인만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전체의 부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팬데믹 이후 이같은 대출 업체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입금되는 빠른 자금은 그만큼 빨리 당신의 계좌를 고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제안 뒤에는 알지 못하는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지식이 곧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자신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대출 계약이든—르네상스의 것이든 타사의 것이든—서명 전에 반드시 전체 비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어드바이저와 무료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도 연계해 드립니다. 저희 서비스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스페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 커뮤니티의 성공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비즈니스를 지키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문의: Tel: 212-964-6022 / www.renaissancesbs.org